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뷰 - 이학조씨가 전하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날에도 올 여름 내내 우리를 귀찮게 했던 비는 그치지 않고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마침 재단의원을 찾은 이학조(43세)씨를 만나 ‘건강한 혈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편집자註>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서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학조씨가 먼저 말문을 열어주었다.

“정상인도 자신의 꿈을 100% 다 채우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 우리 혈우인도 100%의 꿈을 꾸면서 노력을 하되 자신의 꿈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이학조씨는 먼저 혈우병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혈우병으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심한 경우에는 ‘왜 나를 낳았냐’며 어머니를 닦하는 사람도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지금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나약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 다른 사람과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께 제 병에 대해 말씀하시고 체육 같은 것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가장 싫었거든요.”

남들과 동등한 가운데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는데,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그 때야 안전이 확

보되겠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제대로 부딪히며 살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같이 놀면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놀면 안된다’고 말을 들었다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거나 소풍에 같이 가는 것이 싫었다고 한다.

이학조씨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 자신이 서른살이 될 때까지는 응고인자제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83년인가 발치를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혈우병 환자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입원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치료비도 150만원이나 된다고 해서 절망감이 대단히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어 응고인자제제에 대해 지원을 받았을 때 대단히 고마웠다고 한다.

“제가 약을 적게 맞으면 다른 더 어려운 환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약을 덜 맞기도 했죠. 그런데 주위에서 약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린다는 사람, 약이 남아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약이 없던 것에서 출발해서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혈우병 환자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는 마음이나 목소리가 큰 것 같다’며 조금씩 양보를 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학조씨는 지금 하고 있는 일(우리정보시스템 전기실 근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라는 분야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위험한 분야라고 느껴지겠지만,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한 일입니다. 활동성도 크지 않구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 때 가세가 기울어 인문고등학교 나온 상태로는 취직이 안되어 취직이 잘 된다는 과를 선택한 것이 지금의 직장과의 인연이 되었다며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은 많다’고 하였다.

혈우병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의 선택에 있어 세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을 읽으며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 웹 디자이너가 촉망받는 직업으로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결국 사람들이 넘쳐나다 보니 희소성이 없어져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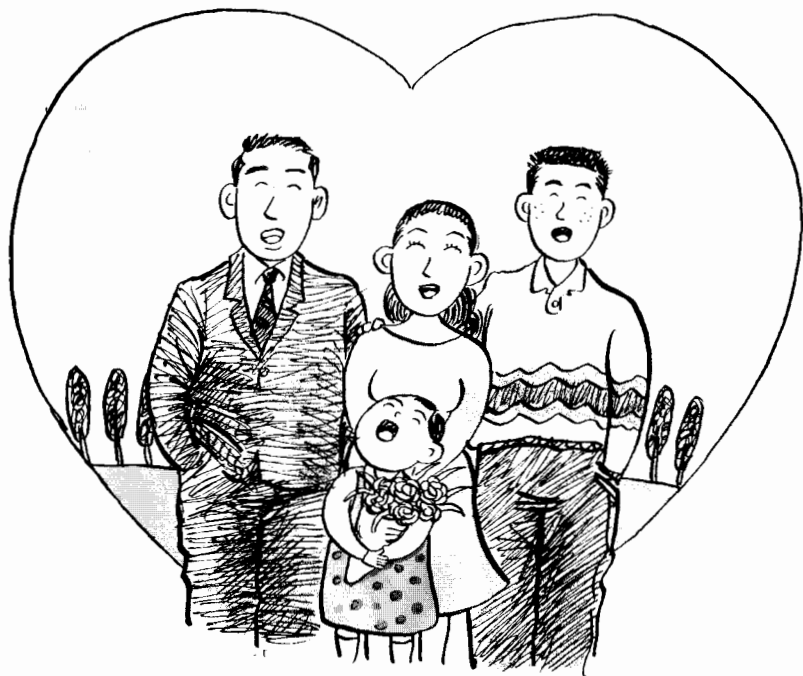
인건비도 싸지는 결과를 낳았죠.”라고 답해주었다.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분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이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 차려진 밥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전문 직업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친구관계에 대해서 이학조씨는 “골고루 사귀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독자(獨子)여서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새 학급이 되어 열흘이 지나서야 짝과 겨우 한두마디 할 정도였죠. 그래서 대학때는 과대표까지 했는데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때는 마음을 열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다행히 아직도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있습니다.”

이학조씨는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할려고 했다고 한다. 테니스, 야구, 축구를 즐겨하고 등산도



자주했다며 '움추리고 있는 것 보다는 떳떳해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밝히면 떳떳해 집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몸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빠져버리면 뒷말을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무리인 것이 뻔한 일을 해서도 안되죠."라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하루는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자주 아프냐?'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 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줬죠. 그랬더니 '대단하다. 그동안 어떻게 견뎠냐?'고 말하더군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조씨는 지금 슬하에 아들과 딸,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첫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면 혈우병에서 해방되지만 딸일

경우에는 보인자로 그 아들이 혈우병을 가질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지금 스무살이고, 둘째 딸이 8살인데 딸아이가 커서 결혼을 할 때 짚으면 혈우병을 극복할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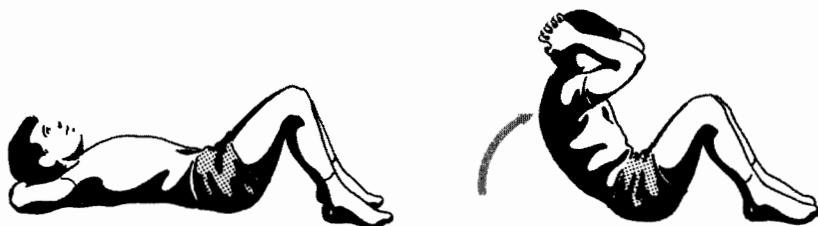
미래의 걱정을 지금 하지는 말자고 생각했던 이학조씨는 마지막으로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 자신도 자꾸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것인지 약에 몸이 적응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주위에 응고인자체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약에 의존하는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약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생 전체를 차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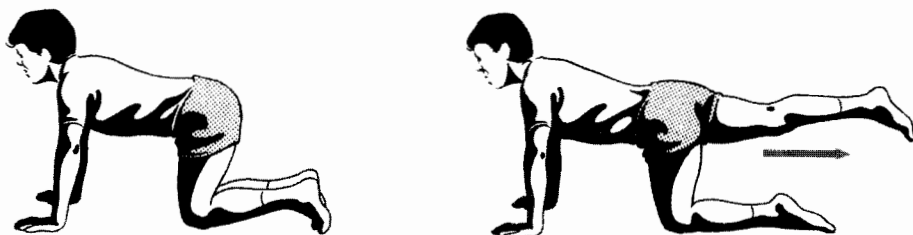
크림

혈우병의 물리치료(2) - 근육신장과 근육강화(str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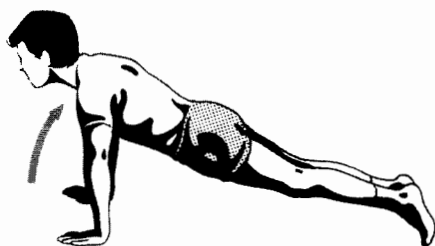
- 5** 무릎 굽혀 뒷몸 일으키기 : 양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두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눕는다. 두 손은 각지를 끼어 머리 뒤에 놓는다.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 결코 그림 보다 더 높이 들어올리려 하지 말라.(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다리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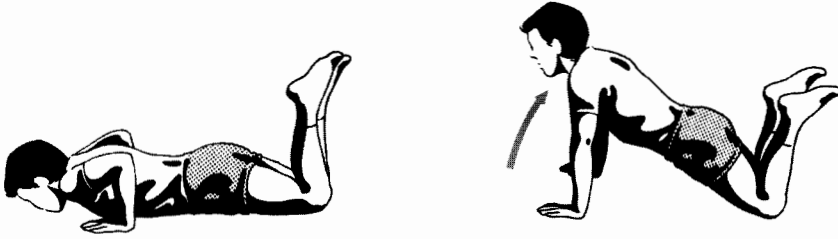
- 6** 뒤로 발차기 : 양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그림과 같이 엎드려 두 발을 번갈아가며 뒤쪽으로 천천히 뻗는다. 발을 뻗을 때 등이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부하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을 발목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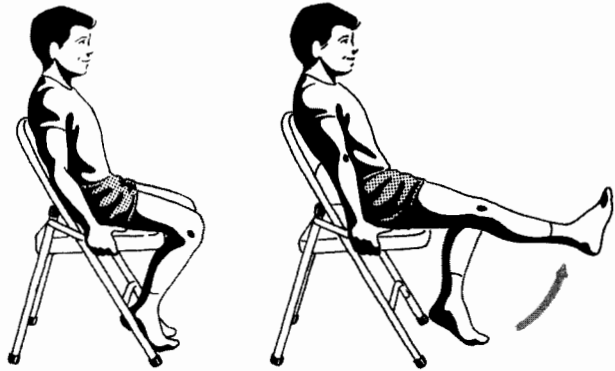
팔굽혀펴기 : 배를 바닥에 깔고 몸을 쪽 편 상태로 엎드린다. 두 손바닥을 어깨 옆에 붙이고 팔을 뻗어 몸을 들어올린다. 이때 몸 전체가 곧은 상태여야 한다. 천천히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 횟수는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다.



8 변형 팔굽혀펴기 : 그림과 같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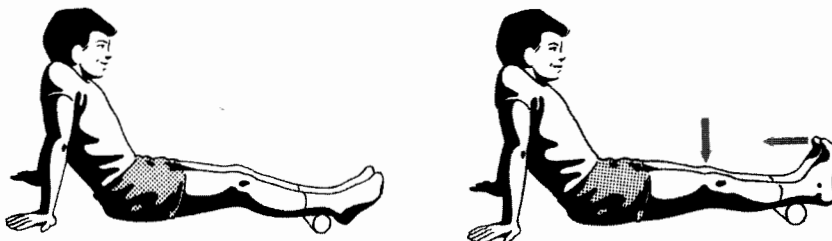
9 의자에 앉아 발 들어올리기 : 의자에 앉아 다리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천천히 다리를 들어올린다.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발을 내리고 다른 쪽 발을 반복한다.(부하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을 발목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10 엎드려 무릎 굽히기 : 배를 깔고 그림과 같이 엎드려 무릎을 굽힐 수 있는 최대한 천천히 굽혀준다. 이 동작을 발을 바꾸어 반복한다.(다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더 할 수도 있다.)



11 발 끝 당기기 : 두 발을 앞으로 쭉 펴고 앉아 둥글게 만 수건을 발목 아래에 놓는다. 발가락 끝을 몸 쪽으로 당기면 정강이 쪽의 근육이 팽팽해 질 것이다. 동시에 무릎이 쭉 펴지도록 무릎을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이 상태에서 다섯까지 센 다음에 힘을 뺀다. 발을 바꾸어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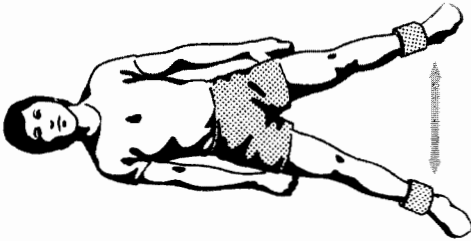
※ 부하운동 : 모래주머니와 아령 등 무거운 것을 이용하는 운동을 부하운동이라고 한다.
 부하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부하를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2



(부하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 : 발목에 모래주머니 등을 찬 다음 등을 바닥에 대고 곧게 눕는다. 한쪽 발을 곧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모래주머니의 저항감을 느낄 정도로 들어 올린다. 이때 바닥에 닿아있는 나머지 발도 곧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발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섯까지 센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는다. 발을 바꾸어 반복한다.

13



(부하운동) 누워서 다리 벌리기 :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등을 바닥에 대고 바르게 눕는다.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모래주머니의 무게가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다. 이 상태에서 다섯을 센 다음 힘을 빼고 처음 자세로 돌아온 후에 반복한다.

14



(부하운동) 엎드려 다리들기 :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배를 바닥에 깔고 엎드린다. 다리를 곧게 펴고 무게감이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다리를 들어올린다. 이때 바닥에 있는 다른 다리도 곧게 편 상태여야 한다. 발을 바꾸어 반복한다.

15



다리 곧게 펴서 누르기 : 그림과 같이 의자에 앉아 두발을 앞으로 곧게 뻗는다.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 발목부분이 교차되도록 한다. 오른발을 위로 올리면서 왼발을 아래로 누른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열까지 센 후 다리를 제자리에 놓는다. 발을 바꾸어 반복한다.

세계혈우연맹의 '안전과 공급 소식'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북아메리카의 헌혈 혈액에 대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검사가 7월에 시작되었고 감염된 혈액은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재검사가 실시되었다. 로슈(Roche)와 케이론(Chiron) 양 사에 의해 실행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검사는 올 여름 들어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이번 여름 멕시코와 영국 양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말과 축우에서 발견되었다.

영국의 바이러스학 저널인 'The Journal of General Virology'에 실린 한 논문은 영국 내 조류의 반에 가까운 수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새들이 과거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여기에 과학자들은 영국에서 인간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노출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열처리가 안된 혈액제품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작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북아메리카에서만 300명 이상에 달했다. 8월 14일 현재까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로 보고된 사례가 470건 이상이며 사망자도 1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올 여름에 혈액을 통해 감염되었거나 사망한 보고는 한 건도 없다.

<http://www.cdc.gov/ncidod/dvbid/westnile/>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올 5월 캐나다 앨버타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발견된 이후 북아메리카에서 우해면양 뇌증(BSE)나 광우병에 관한 새로운 감염은 발생되지 않았다. 우해면양뇌증(BSE)은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유발시키는 프리온과 관련이 있다.

5월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는 이들 쇠고기의 주 소비국인 영국과 일본의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미국 또한 캐나다산 쇠고기 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과 영국 양국은 동물 사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양국의 통제 강화는 감염된 소의 뇌와 척수 조직에 오염된 고기와 뼈 사료가 광우병의 원인으로 추측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 식품 표준청은 30개월 이상된 축우의 판매 금지를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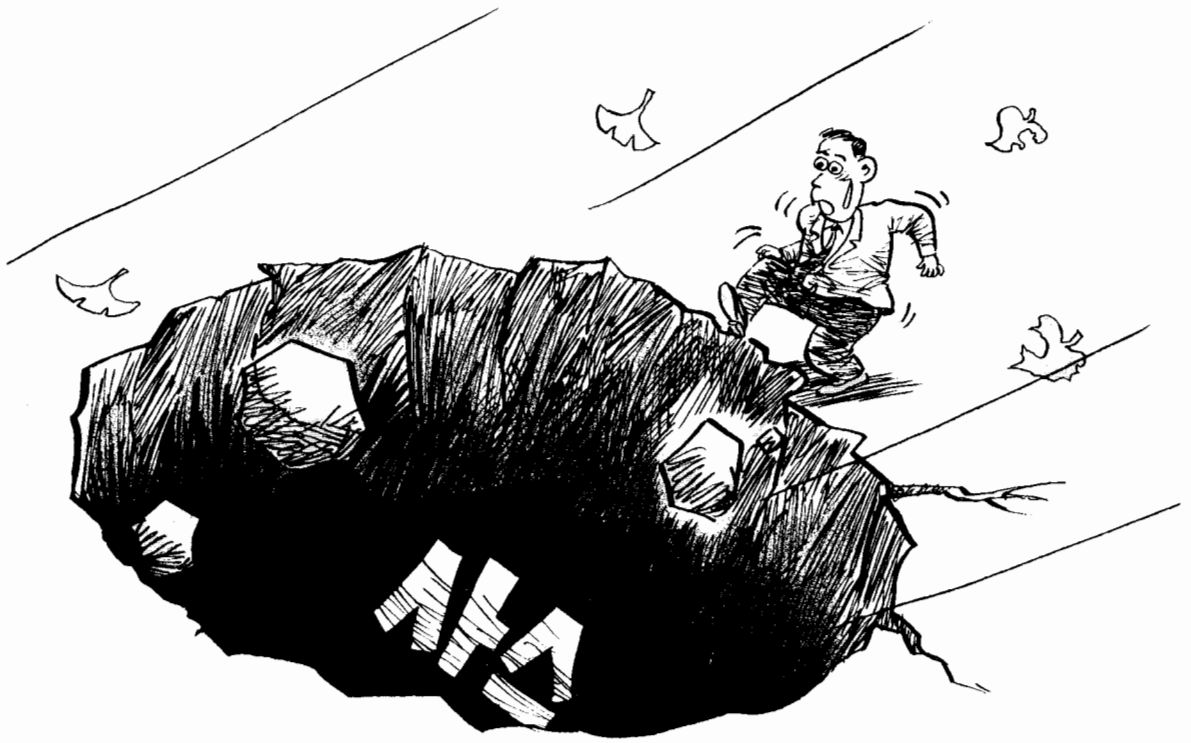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137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BSE에 감염된 축우의 수는 1992년 37,000마리를 정점으로 지난해 600마리로 감소 추세에 있다.

<http://www.foodstandards.gov.uk/bse/bsearchive/>

아벤티스 베링사는 플라즈마내의 인간 프리즌 발견을 위한 방법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100시간 동안 시행되는 검사 시간과 프리즌에 대한 반응 민감도가 크게 증대되었음을 바이러스학 저널 2003년 7월호에 발표했다.

<http://vir.sgmjournals.org/>



급성 호흡기증후군

세계보건기구는 사스 감염 지역에 여행자제 권고문을 발송했다. 2003년 7월 11일 까지 WHO는 전 세계에서 사스로 인한 사망자가 813명, 사스 발병 환자가 8,437명이라고 보고 받고 있다.

현재 응고인자제품과 같은 혈장 분획제제를 통한 사스 전염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스는 구형의 피막으로 둘러 쌓인 단고리 RNA 바이러스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피막에 둘러 쌓인 RNA 바이러스는 혈장분획의 처리 중 병원체 제거 과정을 통해서 제거되거나 활동이 억제된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스가 이번 겨울 독감 유행과 더불어 또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사스 검사와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은 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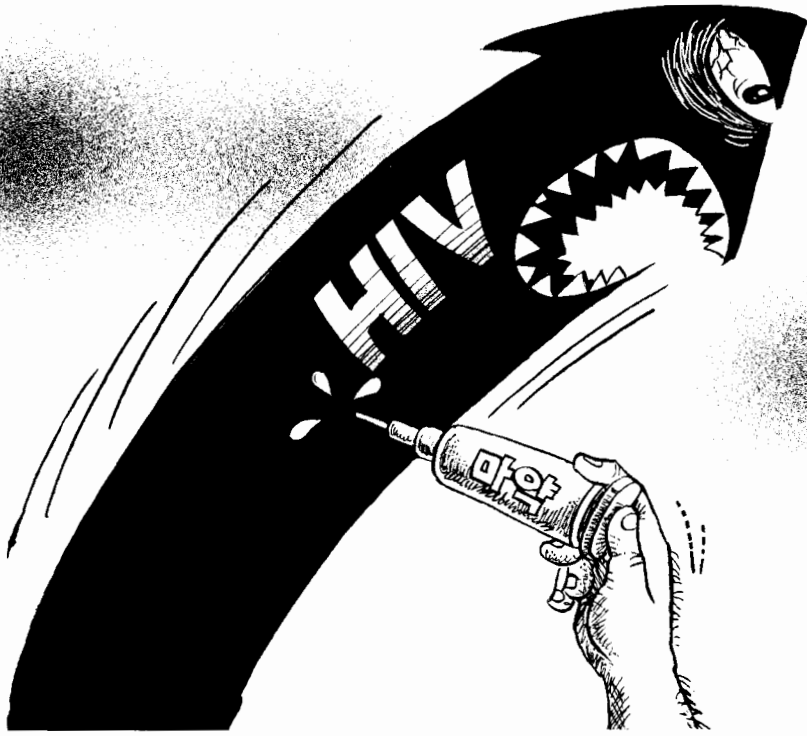
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로슈사는 실험용 PCR 검사를 사스 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박스터사의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시러스사는 이 PCR검사의 상호 혈액 시스템이 적혈구와 혈소판내의 사스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혈장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되고 있다.

<http://www.who.int/csr/sars/en/index.html>

■ HIV/에이즈에 관한 새 소식

파키스탄 주사 마약 사용자들의 매혈

존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파키스탄 주사 마약제 사용자의 30%가 매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이즈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이들 집단에 HIV가 깊숙이 침투



하게 된다면 에이즈가 일반적인 전염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문은 2003년 6월 도시 건강 저널(the Journal of Urban Health)에 실렸다. <http://jurban.oupjournals.org/>

미국 주사 마약제 사용자 집단에서 HIV 증가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주사 마약제 사용자들의 HIV 양성 반응이 2000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고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증가추세를 돌려놓기 위한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와 상담활동을 요구했다.

<http://www.cdc.gov/od/oc/media/mmwrnews/n030711.htm#mmwr2>

러시아 에이즈 감염자 증가추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러시아의 HIV 감염자 증

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보고했다. 감염자 보고는 시골과 도시 모두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새로운 전염의 주요 경로는 주사 마약제를 사용하는 젊은 남성들과 그들의 파트너들이다.

<http://www.cdc.gov/od/oc/media/mmwrnews/n030718.htm#mmwr1>

인도의 HIV/에이즈 감염자 458만명

인도 정부는 458만명의 인도인이 HIV 바이러스와 에이즈에 감염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보다 월등히 증가된 수치이다.

인도 국립 에이즈 통제 기구 <http://naco.nic.in/>

■ 정부 관련 규정 소식

일본의 새로운 혈액법 효력 발휘

일본 내에서 사용되는 혈액과 혈액 제품의 안전을 위한 새 혈액법이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법은 환자들이 사용한 혈액이나 혈액제품의 감염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더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가 30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이 법령은 2008년부터는 일본 내 혈장 소요분에 대한 자급자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헌혈자의 75% 증가를 수반해야 한다.

상업 분획자 무역 그룹인 PPTA(the Plasma Protein Therapeutics association)는 이 법령이 보호무역이며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혈액과 혈장 매혈이 금지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8인자 사용량의 62%는 수입된 것이다.

일본 보건성 <http://www.mhlw.go.jp/english/index.html>;

PPTA, <http://www.pptaglobal.org/index.cfm>

캐나다 정부 국립 혈액 안전 협의회 통합

캐나다 정부는 혈액 규정에 따라 국립 혈액 안전 협의회(NSBC)와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통합했다. 캐나다 혈우병 단체는 국립 혈액 안전 협의회가 캐나다의 혈액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고,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NSBC에 대한 이번 통합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캐나다 혈우병 단체 <http://www.hemophilia.ca/en/15.php>

뉴질랜드 병원 응고인자제제에 대한 예산 공개

뉴질랜드 수도의 크리스처처치 병원은 작년 혈우병 환자 50명에 대한 치료비로 미화 290만 달러를 사용했다. 이중 정부 보조금은 미화 190

만 달러 뿐 이었다.

이번 문제는 이 병원의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치료할 곳을 찾으면서 제기되었다. 이에 뉴질랜드 혈우병 재단은 혈우병 치료를 위한 국가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http://www.haemophilia.org.nz/index.htm>

영국 나이 정책에 대한 소송

오염된 응고제제 때문에 HIV와 HCV에 감염된 영국의 한 혈우병 환자가 유전자 재조합 제제에 대한 정부 보조를 다루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정부는 16세 이하의 모든 혈우병 환자에게 유전자 재조합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했다. 1996년 이후부터 영국 혈우병 단체는 모든 혈우병 환자가 유전자 재조합제제에 대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모든 혈우병 환자가 유전자 재조합제제의 사용에 대해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북 아일랜드에서도 이 같은 처우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21살까지만 유전자 재조합제제를 보조받을 수 있다.

■ 공급뉴스

FDA, 혈장 일부인 미사용 응고인자 처음으로 인정

박스터사는 미 FDA가 새로운 8인자 제품인 Advate-인간이나 동물의 혈장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를 6월 25일자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박스터사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기초한 것으로 기존의 유전자 재조합제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시판될 것이라고 한다. Advate는 유럽과 캐나다에서 세심한 검사를 받았고 올 하반기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박스터사는 전했다.

http://www.baxter.com/utilities/news/releases/2003/07-25-03-fda__advate.html

줄어드는 혈액 모집 센터

박스터사는 미시간주에서 26개의 혈액 모집 센터와 분획시설이 문을 닫고 2,5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매년 혈액제품의 생산량이 460만 리터에서 400만 리터로 줄어든 것이라고 발표했다.

<http://www.baxter.com/utilities/news/releases/2003/07-02-03-restructuring.html>

미 연방 무역 위원회 Wyeth에 대한 조사 종료

Wyeth는 혈우병 치료에 대한 면허 승인에 대

한 미 연방 무역 위원회의 조사가 끝났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Wyeth와 다른 치료 회사간의 관계와 8인자 유전자 재조합체제에 대한 승인을 허용했다.

박스터사 유통 기한 만료 된 주사용수 교체

박스터사는 유전자 재조합체제 주사에 사용되는 주사용수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주사용수의 유통 기한이 응고인자의 유통 기한과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박스터사는 응고인자체제는 유리병 면에 표시된 유통 기한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기한이 만료된 주사용수를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들은 구입처에서 반환해야 한다. **코렘**

53호 정답 및 당첨자

지난 호 퀴즈에 모두 열네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중 두 분이 지난 7월호의 답을 보내주셨고, 8월호 답을 보내주신 분 중에는 '호리병'을 '호로병'으로 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정을 기하는 뜻에서 호로병과 호리병을 병기하신 분을 정답처리하고 나머지 '호로병'을 오답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낱말 맞추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코렘'지는 혈우병을 제대로 알리고, 혈우병에 대한 정보와 혈우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편집,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혈우가족이 다른 혈우가족의 수기를 게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정작 수기를 보내주시는 분은 적습니다.

혈우가족 여러분의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얘기가 전해질 때 혈우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시는 글은 모두 소중히 다룰 것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보	건	소		용	호	상	박	
부		풍	경		리		차	전
상	하		향	수	병			대
	닉			세		인	절	미
컷	바	퀴		미	인	계		문
	람				기		현	
		새		백	척	간	두	
연		우	수	리			자	립
가	스	등		향	약		고	

- ▲ 정답자 : 김진규(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박진현(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오대은(광주시 서구 상무1동), 유지훈(전남 순천시 연향동), 이병길(강원 홍천군 두촌면), 정경민(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정성훈(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 가나다 順

자랑스런 혈우인 상 후보 공모

한국혈우재단에서는 제1회 '자랑스런 혈우인' 상 후보자 추천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자랑스런 혈우인 상은 혈우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애쓰는 숨은 일꾼을 찾아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혈우인들의 미담이 되고 화합과 봉사정신을 키워 이를 본보기 삼아 어려운 혈우인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Korea Hemophilia Foundation
한국혈우재단

- 접수기간 : 9월 1일~ 12월 31일
- 발 표 : 2004년 2월 11일(재단창립일)
- 시상내역 : 혈우인 1명(상패 및 부상)
 관련 인사 및 단체(상패 및 부상)
- 추천대상 : 1. 자활, 자립 활동 등 혈우인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2.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혈우가족간의 화합에 헌신한 자.
 3. 타의 귀감이 되고 혈우가족 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
 4. 재단의 위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추천서
(추천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www.kohem.org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재단 사무국(3층)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한국혈우재단(02)3473-6100, 내선 2번 담당 노혜숙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